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 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10)



담임목사: 김한요
 Rev. Bryan Kim, Lead Pastor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 www.bkc.org ♦ bethel@bkc.org
 Tel: 949.854.4010 ♦ Helpdesk(Text-only): 949-229-1181

각 교육부 및 그 외
 주일예배 안내



- 영아부(18-36개월) / 본당 2층 영아부실
9:00AM, 11:00AM
- 유아부(37개월-PreK) / 할렐루야채플, 온라인
9:00AM, 11:00AM
- K-1(킨더-1학년) / 임마누엘채플, 온라인
9:00AM, 11:00AM
- 유년부(2-3학년) / 유년부실, 온라인
9:00AM, 11:00AM
- 초등부(4-5학년) / 체육관, 온라인
9:00AM, 11:00AM
- 영어중등부(BYM Jr.) / 비전채플, 스튜디오, 온라인
9:00AM(스튜디오), 11:00AM(비전채플)
- 영어고등부(BYM) / 비전채플, 스튜디오, 온라인
9:00AM(비전채플), 11:00AM(스튜디오)
- 한어중고등부(CIM) / 살롬채플, 온라인
11:00AM
- 소망부(장애인) / 소망부실, 온라인
9:00AM, 11:00AM
- BETHEL GRACE CHURCH /
베델그레이스채플, 온라인
9:00AM, 11:00AM
- 日本語 礼拝 / 임마누엘채플, 온라인
1:15PM

담임목사 방송설교 안내

- 공중파 TV 방송:
미주 CGN TV 채널 44.9 · 화요일/오후 3시
- 케이블TV 방송 (CTS America):
TV DirecTV 채널 2092 · 공중파 채널 18.8
화요일/오후 6시 45분 · 목요일/오후 12시 30분
- 라디오 방송 (GBC 미주복음방송):
주파수 AM 1190 KHZ · 금요일/오후 1시

주 일 예 배 Lord's Day Worship Service

1부 예배 | 7:00AM 2부 예배 | 9:00AM 3부 예배 | 11:00AM 4부(청년) 예배 | 2:00PM

- *예배의 부름 Call to WorshipPrisider 예배 인도자
- *신앙고백 The Apostles' Creed 사도신경All together 다같이
- *찬양과 경배 Praise & Worship Bethel Worship 베델 워십
1부/주 예수 이름 높이어(찬/새36장)
- 기도 Prayer.....All together 다같이
1부/박성규 집사 2부/김도석 장로 3부/김근수 장로 4부/채은진
- 찬양(1부) Anthem..... Bethel Choir 베델 콰이어
1부/시편 20편 (작곡 Engene Butler)
- 영상광고 Media Announcement Media 방송실
-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1, 2, 3부/스가랴 9:1-10 All together 다같이
4부/출애굽기 3:1-12
- 말씀 Message 1, 2, 3부.....Rev. Bryan Kim 김한요 목사
Return & Rebuild(13) 스가랴 강해 하늘은 누구를 돕는가?
4부..... Rev. Byung Joo Kong 공병주 전도사
네 신을 벗어라
- 적용찬양 Song in ResponseAll together 다같이
1, 2, 3부/이제는 내가 없고, 겸손
- *결단찬양 및 봉헌 Song of Commitment & OfferingAll together 다같이
1, 2, 3부/거기에 있겠습니다
- *축도 BenedictionRev. Bryan Kim 김한요 목사
- *표는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가 동시통역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www.bkc.org)
 ★ 교회학교 예배가 온라인으로 제공됩니다. 어린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담임목사 칼럼
Lead Pastor's Column

미션 임파서블

Mission Impossible



김한요 목사 / Rev. Bryan Kim

아내가 너무도 좋아하는 남자 배우, 톰 크루즈의 미션 임파서블 7 영화가 개봉되었습니다. 아직은 보지 못했지만, 톰 크루즈가 직접 영화를 찍는 트레일러가 나왔는데, 톰 크루즈는 위험한 액션을 스텐트맨을 쓰지 않고 직접 찍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영화 속에 나타나는 스릴과 긴장감을 그대로 드러내기 위해선 직접 위험을 무릅쓰고 찍어야 한다는 그의 소신 때문입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낭떠러지로 추락하는 장면이었는데, 한 장면을 찍기 위해 하루에도 7번 이상 뛰어내리면서 최상의 장면을 찍는 것을 보았습니다. 감독과 촬영에 동원되는 모든 사람조차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다들 조심하라고 하는데, 그때 톰 크루즈가 한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Don't be careful. Be confident!(조심하지 말고 자신감을 가져라!)" 이 말을 하고 씩~ 웃으며 다시 오토바이 타고 절벽 아래로 나는 모습은 저로 하여금 영화를 더 보고 싶게 합니다. 위험한 일을 할 때는 조심스러워하면 할수록 더 긴장되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할 때 잘 될 확률이 높습니다.

직업 중 가장 위험한 직업은 무엇일까요? 인명 피해가 많은 순으로 벌목 공이나 원양어선 어부 순으로 조사되어 있습니다만, 어느 기자는 한국 대통령만큼 위험한 직업은 없다고 보고 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암살당하고, 노무현 대통령은 자살하고, 이명박 대통령은 감옥 가고,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당한 후 감옥에 가는 것을 보면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목회도 못지않게 위험한 직업인 것 같습니다. 요즘 5년을 꾸준히 한 교회에서 목회하는 사역자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많은 후배 목회자 중에 목회의 현장에서 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에 시달리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팔방미인을 원하는 교회의 요구에 턱 없이 부족한 인간 목회자는 마치 목회가지리발을 걷는 것과 같다는 고백을 합니다. 단순히 요즘 목회자는 멧집이 약해서 그렇다고 말할 수 없는 어려운 현실이 목회의 현실에 있습니다. 만능 설교가에 만능 행정가, 따뜻한 마음에 강력한 추진력, 밤잠 안 자고 뛰어도 강철같은 건강, 인재를 적재적소에 쓸 줄 아는 최고 관리인, 또한 자신에 대해서는 철저한 스캔들-프리 자기관리, 목사 부인은 하해와 같은 사랑의 화신이어야 하고, 자녀들은 모든 면에 뛰어난 흠 없는 자녀이어야 합니다. 이 중 어느 하나가 잘못되면 지뢰를 밟는 것이 목회라고 합니다. 요즘 미국이나 한국이나, 신학교마다 지원 학생 미달입니다. 굳이 그 위험한 직업을 선택하기 위해 신학교에 갈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후배들에게 조심스럽게 목회하라는 말보다, 자신 있게 목회하라는 말을 자주 하고 싶습니다. 지뢰밭 무서워하지 말고, 복음의 폭탄을 던지며, 하나님 앞에서 떳떳이 목회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번 주는 목회자들과 함께 미션 임파서블 7 영화를 보러 가야겠습니다.

My wife's favorite male actor, Tom Cruise's 7th Mission Impossible movie has been released in theatres. I haven't seen it yet. There is a trailer of Tom Cruise filming the movie himself. Tom Cruise is known for doing his own stunts instead of using a stunt double. He does this out of conviction that, in order to capture the thrill and tension of the movie scene, he must do stunts himself regardless of danger. There is a scene where he jumps off a cliff riding on a motorcycle. In order to film this one scene, he had to jump more than 7 times in a day to capture the best scene. Director and everyone involved in making this movie were nervous and told him to be careful. I was impressed when Tom Cruise said, "Don't be careful. Be confident!". With a smile he gets on the motorcycle and jumps off the cliff again. This image really made me want to see the movie. We need to be careful when faced with dangerous work. The more we do it, the more we become nervous, and we often fail. However, if we challenge ourselves and do it with confidence, there is a greater chance that we will succeed.

What is the most dangerous job? It is reported as lumberjack and then ocean fisherman, in terms of high loss of life. One reporter also described that there is no more dangerous job than being Korea's President. It's quite convincing when you see that President Junghee Park was assassinated, President Mooyun Noh committed suicide, President Myungbak Lee went to prison, and President Gunhae Park was impeached and then sent to prison. Being a pastor is just as dangerous. It's difficult to find a pastor who has served more than five years for one church. Many of my younger colleagues suffer from stress and depression working in their ministries. Working for a church that wants all-around perfectionist, pastors confess that, as an imperfect pastor, their ministry is like walking on a mine field. Reality of ministry is difficult. It's not as simple as to say that pastors lack tenacity. You have to be an all-around preacher and an all-around administrator, warm hearted with upright driving force, with health of steel even without sleeping at nights, the best manager who knows how to place right people in the right places, and guard oneself to be scandal free. Pastor's wife must possess love like an ocean. Their children must be flawless, excelling in every area. If any of these areas went wrong, their ministry becomes like stepping on a mine. Seminaries are lacking student applicants nowadays in Korea as well as in U.S. People don't feel the need to attend seminary to choose such a dangerous job. Rather than to say to do ministry carefully, I like to tell my younger colleagues to do the ministry with confidence. Don't be afraid of the mine field. Instead, throw the grenade of gospel and do ministry with confidence before God. I think I will take my pastoral staff this week to see the movie Mission Impossible.



주일 1-3부 설교노트 / 나눔교재

설교자: 김한요 목사

하늘은 누구를 돕는가?

(속 9:1-10)

1. 오늘 본문에 멸망 받는 도시들을 지도에서 찾아 봅시다.

2. 멸망을 선고 받은 도시들의 마지막을 7절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 의미를 적어보십시오.
(참고/ 수 15:63, 삿 1:21, 대상 11:4-7)

3. 앞으로 오실 의로운 왕은 무엇을 타고 오십니까?(9절, 참고/ 사 32:1, 사 11:4)



적용하기



4. 왕이 나귀를 타고 오신답니다. 왕의 어떤 성격을 말하고 있습니까?(9절, 창 49:10-11, 요 12:9 이하)

5.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직접 적용하면 얻어지는 교훈은 무엇인가요?(참고/ 엡 2:8-9, 고전 1:30-31)

■ 적용찬양: 이제는 내가 없고, 겸손

예배 - K-1

레디!! 셋 고!

어린 것 같지만 주님을 향한 마음과 열정만은 어른 못지않은 우리 K-1 부서를 소개합니다! K-1 부서는 Kindergarten부터 1학년까지의 어린이들이 주일 2부(오전 9시)와 3부(11시)에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시작 전에는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영혼들을 맞는 마음으로 선생님들이 뜨거운 합심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이 되기 전까지 전도사님이 그날에 전해 주실 말씀과 관련된 activity를 하면서 작은 예배자들이 다 모이길 기다립니다. 예배 시간이 되면 TA(Teacher's Assistant)들로 구성된 K-1 찬양팀의 뜨거운 찬양으로 예배를 엽니다. 작은 팔을 쭉쭉 펴고 팔짝팔짝 뛰는 율동으로, 찬양으로 하나님께 맘껏 영광을 돌립니다. 선생님들의 눈에도 작은 예배자들의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

예쁘고 사랑스럽고 아름다운데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그리고 본인들이 준비한 예물을 "Thank God" 하며 하나님께 정성껏 드립니다. 다 같이 Bible Man을 부르면 어디선가 Bible Man이 그날에 저희에게 주실 말씀에 관한 Opening을 열고 전도사님께서 전해 주시는 말씀 여행 속으로 꼭 빠져듭니다. 전도사님의 질문에는 너도나도 고사리 같은 손을 들고 답을 합니다. 예배를 마치면 각반으로 흠어져 그날 주신 말씀을 리뷰하고 관련 크래프트를 통해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그리고 그날의 암송 말씀을 다시 연습하고 암송하면서 우리 K-1 친구들이 메일의 삶 속에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도록 훈련합니다.

K-1 부서의 큰 자랑거리는 뜨거운 예배뿐만이

아닙니다. 전도사님을 중심으로 선생님들의 팀워크입니다. 김권사님께서서는 K-1의 어른으로 묵묵히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시고, 팀장 집사님은 모든 일에 세심하게 K-1의 굵은일을 도맡아 뛰어다니며 일하십니다. 또한 좋은 TA들이 열심히 도와주시니 반을 맡으신 선생님들이 안심하고 각반을 이끌어 나가십니다. 이하 모든 선생님은 하나 되어 매번 모일 때마다 웃음꽃이 피어나며 사랑의 마음으로 서로의 안부를 묻고 뜨거운 기도로 서로를 위해 중보기도합니다. 당연히 아이들을 향한 기도도 뜨겁게 사명으로 감당하시는 우리 선생님들이십니다. 앞으로도 K-1을 통해 작은 예배자들을 세워 나가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박정현 사모



건물 관리 사역팀

1. 건물 관리 사역팀에 대해 소개해 주세요.

건물 관리 사역팀은 봉사자 네 분과 행정목사님, 행정실이 서로 협력하여 교회 건물과 건물 내의 모든 시설을 청결하고 안전하게 유지보수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2. 어떻게 섬기고 계시는지요?

건물 내외의 시설 (전기, 냉난방기, 배수구, 환풍기, 건물 외벽, 주차장 아스팔트, 보도블럭 등)을 점검하며 문제점을 파악합니다. 문제 발생 시 교회 내의 전문가에게 조언받고 문제의 정도에 따라 업체를 선정해 보수를 하거나 교체하는 등 문제를 해결합니다. 특히 사전에 문제를 예방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겨울에 옥상 배수구가 막혀 물이 새지 않도록 미리 청소한다거나, 교회 앞 주차장 바닥이 많이 갈라졌을

때 안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미리 공사를 계획(8월 예정)하는 등의 일이지요.

3. 받으신 은혜를 나눠주세요.

섬기시는 분들이 너무 열심히 일해 주셔서 항상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건축 관련 업무에 종사하시는 봉사자분들께서 주님의 몸 된 성전을 유지보수 하는 데 있어서 생업을 제쳐두고 우선으로 섬겨주시는 것을 볼 때 큰 은혜를 받습니다.

4. 사역을 통해 바라는 점은?

건물과 시설 관련 전문 분야에서 일을 하시는 성도님들이 많이 참여하셔서 유지 보수에 관련된 조언도 해주시고 교회를 위해 도우시며 주님의 성전을 지켜나가기를 원합니다.

5. 성도님들께 꼭 부탁드립니다 싶은 것은?

교회 내의 모든 시설(예배당, 교실, 화장실, 주차장, 주방 등)을 깨끗하게 사용해 주시는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성도님들을 위해 안전하고 깨끗한 예배 공간과 교육 공간을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특별히 교실 내에서의 음식물 섭취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매주 점검하지만, 작동하지 않는 엘리베이터나 주방 사용 시 문제점 또는 고장 난 변기를 발견했을 때 등, 혹시 놓칠 수 있는 작은 문제점이라도 발견하시면 바로 행정실로 알려주세요. 문제점을 빨리 인지할수록 소중한 시간과 비용이 절약됩니다. 내 집처럼 소중하게 아끼고 함께 관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문의: 고석민 장로 (714)501-7456

신학 강좌 후기

신학으로 이해하는 장애인



장애인은 누구인가? '신학으로 이해하는 장애인'이라는 다소 생소한 주제로 개최된 '제7차 한여름의 시원한 신학강좌'는 현장에서 장애인 사역을 펼치시는 전문가 강사님들의 강의를 듣는 시간이었습니다. 사회적 범주 안에서 사회적 약속으로 구분된 장애인에 대한 생각에서 머무르지 않고 성경적인 관점으로 장애인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느냐는 장애인 인식의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장애인 신학 이론과 그것이 현장에서 어떻게 실천되는지 보여주는 실제 사례들을 통해 인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디자인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와 정신 그리고 장애인 사역자들의 가치와 헌신을 발견하게 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이번 신학강좌를 통해 장애인 사역은 하나님의 지상 명령이며,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수행되어야 하는 필수 불가결한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장애인에 대한 무지와 무관심으로 인해 부정적 편견과 차별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왔던 것을 회개합니다. 저 또한 미래의 노인성 장애 대상자로서 장애인 신학과 장애인 사역에 대한 관심의 지경이 넓어지는 은혜와 도전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인 베델교회가 장애인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박현진 집사

금요일과 토요일 이틀 동안 '성경으로 이해하는 장애인'을 강의하신 이재서 교수님은 15세에 눈이 멀어 장애인이 되셨는데 1979년 한국 밀알선교단이라는 장애인을 위한 선교 단체를

창립하시고 현재는 세계밀알연합 총재를 맡고 계시며 전 총신대학교 총장을 역임하셨습니다. 강의 내용 중, 성경 속의 장애 관련 구절은 다 합치면 누가복음보다 긴데 그것은 하나님이 장애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장애인을 사랑하시는 것을 나타낸다고 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장애는 죄를 깨닫게 하려는 징계의 성격도 있지만 노인성 장애, 사고로 인한 장애, 전염병 등과 같은 우연적인 인생의 보편적 현상에서 오는 장애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한 목적의 장애도 있다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장애인 사역은 많은 주변 사람을 변화시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게 하였는데 이를 통해 장애인 사역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의 사역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장애인으로 살면서 성경 속의 장애인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연구하고 일생을 장애인 선교에 헌신하신 교수님의 삶에서 나오는 무게 있는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인 당신이 선택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크고 놀라운 사랑과 계획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남우영 집사

신학강좌에서 듣게 된 메시지 중에서, 차별 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에 따라 지적 장애인도 비장애인들과 같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나, 그 믿

음은 결코 우리의 지적 동의나 이해를 조건으로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달려 있다는 말씀이 깊이 와닿았습니다. 평소 장애인에 도와야 할 대상이며 나와 다르다고 생각했던 내 자신이 오히려 영적 장애인임을 깨달았고 일방적으로 한쪽이 한쪽을 돕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함께 협력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복음을 전하면서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기보다는, 나의 의지로 전도 대상자를 이해시키려 했던 모습도 부끄러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나의 눈높이에 맞춰 구원의 비밀을 알려주셨듯이, 겸손한 마음으로 귀한 복음을 선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황리나 집사

소망부 VBS 봉사자로 등록을 하고 기도로 준

비하던 중 듣게 된 신학강좌는 저에게 여러 부분에서 도전이 되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생소하고 낯선 장애인 신학이라는 주제는 제가 그동안 가져왔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사회적 관점 수준에 머물러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강좌를 통하여 그동안 생각해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장애인에 대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장애인은 사랑으로 돌봐야 하는 대상이고 더불어 우리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주권적 목적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듣고 시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사는 것과 같이 분명 그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장애인을 포함하여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 특별히 우리 베델교회를 통하여 그 다양성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화합하여 선을 이루길 원하심을 믿습니다.

윤은정 집사



선교-몽골

추수할 일꾼으로



몽골에서 놀랍도록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한 달 반 남짓한 짧은 준비기간에도 불구하고 선교팀원들이 한 마음으로 연합되어 몽골에 1주일간 복음을 전하고 왔습니다. 몽골 도착 비행기도 연락되고 궂은 날씨로 교통 체증도 심해, 촉박한 시간과 피곤한 가운데 영원한 사랑 교회에서의 어린이 사역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준비를 담당했던 사역이지만, 당일이 다가오니 비가 오면 실



내에서 할 수 있는 사역을 준비해 놓은 것이 많지 않아 긴장되었습니다. 사역지에는 다행히 비가 내리지 않아 준비했던 야외 사역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였습니다. 알아서 각자의 자리를 찾아 사역 하시는 몽골 청년들과 베델 팀원들, 화창한 날씨와 폭신한 잔디에 감사했습니다. 특히 복음 부스를 통해 몽골 청년들에게 복음을 제시할 때 한 영혼이라도 더 천국에서 만나고 싶은 주님의 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저조차도 값진 추수할 일꾼으로 쓰시는 주님께, 또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김지수 자매

'선교'하면 바쁘다는 이유로 깊게 생각하여 본적이 없었는데 올해부터 선교에 대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내 삶에

집중하는 것도 좋지만 일주일 동안만큼은 하나

님께서 바라보시는 곳을 함께 바라보며 하나님을 전하는 마음을 주신 것 같습니다. 몽골에서 만난 아이들은 정말 사랑스러웠습니다. 가만히 앉아있던 아이에게 다가가 "세노!(안녕)"라고 인사했을 때 환히 웃으면서 "세노!" 하며 저를 바라보던 그 아이의 얼굴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환하게 웃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아이들을 이렇게 사랑스럽게 바라보시는구나 느꼈습니다. 또 몽골 청년들과 함께 몽골어로 된 찬양을 연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거룩한 나라에 함께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운 일인지 느끼게 하셨습니다. 끝도 없이 펼쳐진 광활한 초원을 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꼈고, 환하게 웃는 아이들을 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언어는 다르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만은 하나였던 시간에 하나님이 함께하셨다는 걸 느꼈습니다. 모든 순간이 정말로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몽골로 인도 해주셔서 더 큰 사랑을 알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김수빈 자매

QT 나눔

오직 주님만을 신뢰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잠언 3: 5-7)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막상 예기치 못한 일이 생겼을 때 온갖 세상의 방법과 해결책을 먼저 찾습니다. 그런데도 일이 해결되지 않을 때 그 제서야 주님께 엎드리고 간구하는 저는 교만 그 자체입니다. 살아갈수록 저의 뿌리 깊은 교만과 죄가 더욱 드러나 절망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사건들을 통해 나의 의와 자라는 내려놓게 되고, 오직 의지할 분은 주님 한 분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저의 죄악된 본질은 지성을 추구하며 지적인 사람, 명철함과 지혜 있

는 자 되는 것이었으며 그것이 제 마음에 이상이었음을 이제서야 깨닫습니다. 참된 지혜는 오직 주님을 신뢰하는 것, 그리고 그 삶은 세상에서 추구하는 삶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해 주십니다.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믿음으로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 그 길을 인도하고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장윤정 집사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라"(레 26 : 2-5)



교회 문이 활짝 열리고 교회 뜰을 밟으며, 은혜로운 찬양을 맘껏 부르고 예배를 드리며, 성도님들과 교제를 나누며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팬데믹때 예배가 그리웠던 그 순간들을 잊어버리고, 저의 자아와 교만으로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에 순종 하지 못했음을 큐티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와 계명에 순종하면, 때를 따라 주시는 비와 열매 맺도록 하시는 축복, 평화와 번성의 축복,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축복받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선민 권사

담임목사: 김한요 목사

◎목회자◎

- 기획/행정/기도: 이충경 목사
- 사랑/BCA/QTM: 정승락 목사
- 소망/전도폭발/이웃사랑: 주성필 목사
- 믿음/예배/선교: 김홍식 목사
- 화평/베델워십/셀: 박성철 목사
- 은혜/교회학교: 박성권 목사
- 충성/훈련/평생교육: 조태현 목사
- 새가족/경조/예향: 한순고 전도사
- BGC: Dan Nam 목사
- BGC(College/Worship): Peter Lee 목사
- 일본어 예배/헵시바: 손용주 목사
- 예삼채플(총괄): 강문구 목사
- 예삼채플: 공병주 전도사
- 예삼채플: 강수연 전도사
- 영어중고등부: 현호승(Daniel) 전도사
- 영어중고등부: 김한나(Hannah) 전도사
- 한어중고등부: 이형석 전도사
- 초등부: 이정연 전도사
- 유년부: 이승진(Sharon) 전도사
- K-1: 정가영(April) 전도사
- 유아부: 정티나 전도사
- 영아부: 이진영 전도사
- 아기학교: 김재은 전도사
- 소망부: 박정민 전도사
- Beyond the Blue: 이란혜 전도사
- 영어양육/제자반: 이앤드류 전도사

◎베델 파이어 및 찬양팀◎

- 지휘자: 김형직 목사
- 솔리스트: 최정원
- 뮤직디렉터: 정봉화
- 반주자: 한현미, 이정은

◎사역 간사 및 인턴◎

- 의료상담: 이강민 전도사
- 영어중고등부: 이사라, 최소영 인턴
- 방송실: 김앤드류 인턴

◎교회 직원 및 간사◎

- 사무장: 마현진
- 건물/차량관리: 김유호
- 사무실: 인현미, 김은영
- 재정실: 이수민
- 방송실장: 박주남 전도사
-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음향: 최철기
- 음향: 강창위
- 방송실: 최준형, 김지현
- 디자인: 박선경
- 웹: 김경아
- 수양관: 오춘란

사역광고

베델 기도학교

하나님을 향한 설렘과 기대의 가장 큰 표현은 바로 '기도'입니다. 체계적인 기도훈련을 통해 기도의 영성을 배우고, 2023 비전 Always Be There에 따른 여러 사역, 예배,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크신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고 사모하는 모든 분을 '베델 기도학교'로 초대합니다.

- 기도 영적 전쟁의 필수 무기, 기도의 용사로 훈련이 필요합니다.
- 기도! 영혼의 호흡, 기도하지 않는 것은 영적인 질식입니다.
- 기도!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기도학교란 개인 기도의 실제적인 방법을 소그룹 안에서 함께 배우고 실습하며 기도의 동역자로 세워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배우고 싶은 분, 기도를 통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은 분, 지속적인 기도 생활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된 삶을 살기 원하는 분은 이번 기도학교에 참여하셔서 기도의 동역자가 되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 ▶ 기간/장소: 8월 24일-12월 7일(총 16주), 유년부실
- ▶ 강의와 세미나: 8월 24일(목), 25일(금) 오후 6시 30분 (간단한 식사 제공)
- ▶ 접수 기간 및 방법: 7월 30일(주일)-8월 20일(주일), 본당 앞 부스 또는 교회 홈페이지
- ▶ 강사: 이충경 목사, 김홍식 목사, 박성권 목사, 한순고 전도사
- ▶ 준비물/회비: 성경책과 필기구(당일 필기구 비치), 20불(식사, 소책자 포함)
- ▶ 문의: 주용중 집사 (949)812-2906, prayer@bkc.org



예배 봉사자

주일예배 대표기도(7,8월)	7/30:	①부-박재문	②부-김병인	③부-김문경	④부-김영재
	8/6:	①부-박영선	②부-허용진	③부-김태현	④부-이효민
	8/13:	①부-박지학	②부-박원규	③부-유형석(5313)	④부-윤여훈

헵시바 토요일 새벽 대표기도(7,8월) | 7/29: 김종곤 8/5: 김진원 8/12: 김태운 8/19: 김현일

강단꽃(7,8월) | 7/23: 박은미, 서진하 7/30: 류재영, 이태형 8/6: 김중현, 현승원 8/6: 김창남, 오경희, 이나원, 최하차

[의무실 (오전 8:30-오후 1:00)]

이번주 | 의사-김혜수(가정의학과), 간호사-김현욱 다음주 | 의사-마 준(한외과), 간호사-이옥선

선교후원

- [파송선교사] 창외적접근지역 | 손승옥, 김진영(김은경), 이버나버(옥소리), 장과장(주열매), 호세아(그사랑), Nader(Dina), Yeshua, Reza, 박기쁨
- BAM | 서형렬(서정희) 조지아 | 김현수(고봉주) 캄보디아 | 황순현(황현주)
- [협력선교사] 기니비사우 | 유요한(글로리아) 니카라과 | 박우석(이현숙) 이스라엘 | 장이삭(정인나)
- 멕시코 과달라하라 | 허익현(김영중) 몽골 | 을지바트(민애령), Kathy Ribbs 베트남 | 성결(양선) 온두라스 | 이동철(이순미)
- 우간다 | 박민수(이순영) 일본 | 강민숙(변선영) 캄보디아 | 김우정(박정희) 코스타리카 | 금상호(김미경)
- 탄자니아 | 황광인(황영숙) 태국 | 박상선(신영선) 필리핀 | 김승봉(유영선)
- 창외적접근지역 | 이희숙, 길예평(길진명), 허바(배안), 이상훈
- *선교기관 | 나눔선교회, 밀알선교회, 바실레이아 신학교, 소망 소사이티, 한미가정상담소, Gift of Vision, GMMMA, GP미주본부, NAUH, New Hope 선교 유치원, QTM America, Silk Wave Mission, The Center for BAM(CBAM), The Gospel Coalition(TGC)
- *특별선교 | 복음방송(GBC), CTS, CGN TV
- *문서선교 | 기독교일보, 미주 크리스천 신문, 크리스천 위클리

베델 알림판

Bethel Announcements

◆ **베델 수요일예배** 수요일 오전 10시 은혜가운데 드려지는 베델 수요일예배는 정승락 목사의 '온전한 삶으로의 여정 시즌 2 남은 이야기' 시리즈 마지막 시간으로 드려집니다. 현장 예배에 참여하시어 깊은 기도와 말씀의 은혜를 경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녁 7시에는 Youtube로 실황이 방송됩니다.

◆ **세대를 뛰어 넘는 헵시바 일천으로 Always Be There!**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기도가 곧 선교입니다. 헵시바 기도회에 일천 명이 모여 선교지를 향하여 기도합니다. 세대를 넘어 온 세대가 함께 모여 기도의 사명을 다합니다. Always be there! 항상 기도의 자리에 있겠습니다.

일시/장소: 매주 토요일 6시, 본당
*교회 홈페이지에 헵시바 일천을 위한 기도제목이 update되어 있습니다.

◆ **새생명 축제 2023** 한사람이 한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새생명 축제가 베델교회 설립 기념 주간인 9월 10일에 열립니다. 특별히 교회와 인도자와 VIP가 함께 나누는 은혜의 공간인 '리본(Reborn)'을 시작합니다. 또한 새생명 축제를 위해 온 교인이 함께 특별새벽기도로 나아갑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생명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역사를 위해 온 교인의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리본(Reborn): 7월 30일(주일) Web App 오픈
새생명 축제 특별 새벽기도: 9월 5일(화)~9일(토)
문의: 임동익 장로 (323)356-0521

◆ **베델 기도학교 모집** 기도학교 신청을 받습니다. 체계적인 기도훈련을 통해 기도의 영성을 배우고, Always be there 비전에 따른 기도의 용사로 쓰임 받고자 합니다. 기도를 사모하는 모든 분들을 초대합니다.(7면 참고)

일정/장소: 8월 24일~12월 7일(총 16주), 유년부실
접수 기간/방법: 7월 30일(주일)~8월 20일(주일), 본당 앞 부스 또는 교회 홈페이지
문의: 주용중 집사 (949)812-2906, prayer@bkc.org

◆ **아기학교 가을 학기 개강 안내** 가을 학기 아기학교가 8월 24일(목)에 개강합니다. 등록은 주일 1, 2, 3부 예배 후 본당 앞 부스에서 하실 수 있고 40명 정원(선착순)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기간: 8월 24일(목)~11월 16일(목), 13주간 매주 목요일
대상: 15-48개월
문의: 김경자 권사 (949)351-6123, 김재은 전도사 (949)923-7094

◆ **CIM 한어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 'Ignite'** 청소년 자녀들의 많은 참여와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간: 8월 10일(목)~12일(토)
장소: 베델 갈릴리 수양관
등록 방법/회비: CIM 단체 카톡방 구글 링크, \$120
문의: 장세인 집사 (949)910-1670, 이형석 전도사 (714)944-8339

◆ **교회학교 교사모집** 주일 예배 교사로 섬겨 주실 분들을 모집 합니다. 특별히 영아부, 유년부, 초등부의 교사가 필요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많은 기도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영아부 섬김/문의: 2부와 3부 예배, 김성희A 권사 (714)423-5107
유년부 섬김/문의: 3부 예배 한어 혹은 영어 교사, 이승진 전도사 (626)487-1477
초등부 4-5학년 섬김/문의: 2부/3부 예배 영어 교사 이정연 전도사 (860)716-0541

◆ **AWANA 교사 모집** 2023년도 AWANA 가을학기 교사와 TA로 섬겨주실 분들을 모집합니다.

가을학기 기간: 9월 8일~11월 17일(11주) 매주 금요일 오후 7시~9시
교사 등록 기간: 7월 23일~8월 13일
학생 등록 기간: 8월 6일~8월 26일(K-5학년)
문의: 이준호 집사 (909)859-5233, Awana@bkc.org

◆ **베델콰이어 단원 모집** 베델교회의 1부 예배를 은혜 가운데 섬기는 베델 콰이어와 오케스트라에서 단원을 모집합니다. 주중 연습은 금요일 저녁에 실시됩니다. 더욱 풍성하고 힘있는 콰이어가 되도록 많은 성도님들의 지원 부탁드립니다.

문의: 오은옥 권사 (714)615-7096, 김형직 목사 (909)964-2537

◆ **기도해 주세요**

- 필라델피아 단기선교가 7월 22일(토)~7월 28일(금)까지 진행중에 있습니다. 안전하고 은혜로운 사역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온두라스 단기선교가 7월 23일(주일)~7월 29일(토)까지 있습니다. 안전하고 은혜롭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확장이 이루어 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로해 주세요**

故 유병돈 장로님(김지현 집사의 부친/김미슬 집사의 장인)께서 7월 13일(목)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모든 장례는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교회학교 주중 모임 안내	주중 예배 및 기도모임 안내	베델뉴스 편집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WANA(어와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parkies(유년부) / 금요일 오후 7시, 각 클래스(K-2학년) - Truth&Training(초등부) / 금요일 오후 7시, 각 클래스(3-5학년) ■ 중,고등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YM(영어중고등부) / 금요일 오후 7시 30분, 비전채플 - CIM(한어중고등부) / 금요일 오후 7시 30분, 살롬채플 ■ 한국학교: 토요일 오전 9시, 한국학교 각 교실 ■ 아기학교: 목요일(15-48개월) 오전 9시 45분, 할렐루야채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중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시 30분, 본당 ■ 헵시바 새벽기도회(토): 오전 6시, 본당/온라인 ■ 베델 수요일예배: 오전 10시, 본당 오후 7시, 온라인 ■ 예수님수요일예배(청년): 오후 7시 30분, 임마누엘채플 ■ 주일 레위기기도 모임: 1-3부 예배시간 중, 컨퍼런스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행인: 김한요 담임목사 ■ 편집장: 박은혜 권사 ■ 기자: 김규현 집사, 김성복 집사, 김혜영 권사, 남우영 집사, 배은섭 집사, 윤은정 집사, 이지애 집사, 정민주 집사, 최 신 권사, 황리나 집사 ■ 사진 기자: 박상근 장로, 최호경 집사, 차규양 장로

비전 주차장 3345 Michelson Drive, Irvine, CA 92612 *주차 시 (Employee Reserved Parking)은 피해서 주차하시길 부탁드립니다. ◆ 베델뉴스 원고파일은 bethelnews@bkc.org로 보내주세요.

베델/갈릴리수양관 31600 El Cariso Trail, Lake Elsinore, CA 92530 ◆ 수양관전화번호(예약문의) (949) 943-9697 ◆ E-MAIL bgrcenter@hotmail.com



Who Does Heaven Help?

(Zech 9:1-10)

1. Please refer to the map and locate the cities that face destruction in today's verses.

2. How does verse 7 describe the ends for the cities sentenced to destruction?
(Ref: Josh 15:63, Judg 1:21, 1 Chron 11:4-7)

3. What does the righteous King that has been foretold to come ride? (v. 9, Ref: Isa 32:1, Isa 11:4)

4. It is said the King will arrive on a donkey. What does this say about the King? (v.9, Ref: Gen 49:10-11, John 12:09)

5. What is the lesson for us when we apply today's verses to our lives? (Ref: Eph 2:8-9, 1 Cor 1:30-31)



Apply to Life

